

'국내 최초' 카메라 100년 역사 한눈에

동신대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 재개관 1400여대 기증...소장품 특별전

'카메라의 100년 역사를 만나다.'
 동신대학교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30일 재개관했다.
 동신대(총장 이주희)는 객원교수였던 고(故) 이경모 선생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세계 각국의 카메라 1400여 대와 사진 작품을 기증받아 1996년 국내 최초의 카메라박물관을 개관했다. 학교 측은 재개관을 맞아 기증자를 기리기 위해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특별전도 함께 열고 있다.
 이날 중앙도서관 5층 박물관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고 이경모 선생의 아들인 이승준씨가 참석, 감사패를 받았다.
 이경모 선생은 광주일보의 전신인 호남신문사 사진부장과 국방부 정훈국 문관으로 재직, 여수순천사건과 한국전쟁 등 한국 현대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왔으며 이후 시민들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를 만드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1992년 화관문화훈장(1992), 1997년 금호예술(1997), 자라



동신대학교 이경모 카메라 박물관 개관식이 30일 동신대 중앙도서관 5층 박물관에서 열렸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스러운 전남인상(1998) 등을 받았다.
 동신대는 박물관 재개관과 함께 '카메라의 역사 100년'을 주제로 소장품 특별전도 열고 있다. 사진의 대중화에 기여한 코닥의 세계 최초 롤필름 '브라운니(Brownie)', 200만 대가 팔려 그 시대 가장 성공적인 카메라로 불린 코닥의 '베스트 포켓(Vest Pockets)' 등 1890년대부터 1990년대

까지의 카메라 340여 대를 만날 수 있다.
 또 19세기 인물사진을 촬영했던 유럽의 스튜디오를 재현한 포토 존을 설치,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100년 전 스튜디오 감성의 폴라로이드 인물 사진 촬영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담양청소년지도협의회, 황혜성 박사 초청 학폭 예방 교육



담양청소년지도협의회(회장 서생현)는 지난 26일 담양남초등학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황혜성 교육학 박사를 초청하여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담양군과 담양경찰서의 협조 하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교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 및 퀴즈가 포

함됐으며 참여학생들에게는 작은 선물 및 상품권이 전달됐다.
 서생현 회장은 "누구나 학교폭력 문제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교폭력예방과 법 교육을 실시해 학교폭력 없는 담양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호남·제주권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안 논의 간담회 실시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 26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보건복지부 및 아동권리보장원, 광주광역시, 호남·제주권역 5개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 논의 및 정책제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에서도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위탁 부모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주기를 요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조선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8년 연속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시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주로 40세 이상 성인에서 주로 발병하며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숨이 차고 만성 기침, 가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번 평가는 심평원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병원을 방문

한만 40세 이상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평가 지표는 ▲ 폐기능검사 시행률 ▲ 지속방문 환자비율 ▲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이다.
 평가 결과 조선대병원은 종합점수 전체평균인 68.5점을 크게 웃도는 92.0점을 받은 것은 물론 2014년 평가가 시행된 이후로 8년 연속 1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이병희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전남도 출연기관 1호 나눔리더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사랑의열매)는 이병희(사진)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이 전남도 출연기관 1호 나눔리더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220인의 나눔리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 이 원장은 "도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며 지역사회에서 촉진한 복지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복지기동대를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TV프로그램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다큐 인사이트(재) 50 만담다큐 호수인	00 어쩌다 마주친, 그대(재)	15 푸르기 식사교실(재) 45 주니토니이야기	00 애니갤러리 30 나비의 모험 45 헬로카봇 13 점
12	00 KBS 뉴스 12	1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크특선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닥터 365 55 최강 1교시
1	00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5 헬로키즈 신비한 자연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열린채널 50 어린이 동물티비			00 뉴스브리핑
3	20 팔도밥상(재)	00 KBS 뉴스타임 10 린다의 신기한 여행(재) 30 TV 유치원	55 5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스튜디오 K(재) 30 영상앨범 산	55 5 MBC 뉴스	00 닥터 365 05 특집 바이시클 로드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30 꿀잼 영화가 좋다	10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고지식 만담회	50 비밀의 여자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옥탑방의 문제아들		30 KBC 8 뉴스
9	00 KBS 뉴스9	50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00 일타강사	00 골 때리는 그녀들
10	00 2022 KBS 경영평가 결과 10 생로병사의 비밀	50 걸어서 환상 속으로(재)	30 라디오스타	40 편먹고 공치리5-승부사들
11	00 KBS 뉴스라인W 40 천상의 컬렉션 베스트(재)			
12	10 시사기획 창(재)	10 아이 러브 스포츠 35 스튜디오 K	1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30 KBC 문화가중계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재)
 06:1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시용
 07:15 하프와 친구들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07:45 엄마 까투리
 08:00 당동명 유치원
 08:20 웃기는 처음 영어(재)
 08:50 융합한 소방차 레이
 09:05 최고! 호기심딱지(재)
 0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재)
 10:10 한국의 둘레길(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숲이 그린 집(재)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재)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재)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재)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재)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16:40 당동명 유치원(재)
 17:00 페파 피그
 17:10 마사와 곰
 17:20 티타와 쿠마
 17:25 뽀뽀뽀 뽀로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1일(음 4월 12일 己丑) ☎ 010-9790-8237

子 36년생 이해득실만으로 존재를 결정하는 모순이 따를 것이다. 48년생 마무리를 잘못하면 헛수고만 할 뿐이다. 60년생 매끄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활로가 개척되리라. 72년생 마음 먹은 바 그대로 형상화될 수 있다. 84년생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96년생 가볍게 주고받는 말속에 핵심이 숨어 있다. 행운의 숫자 : 12, 86

丑 37년생 오해발광으로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49년생 패도남마해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61년생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익이 따를 수도 있는 하루다. 73년생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끝까지 속썩일 것이니 주의하라. 85년생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97년생 순리대로만 처리한다면 무난하다. 행운의 숫자 : 41, 60

寅 38년생 마주 대하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50년생 원만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이다. 62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된다면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74년생 충동적인 판단으로 기인한다면 후회가 따른다. 86년생 소모적인 경쟁은 상호 파멸을 자초할 뿐이니 자제하라. 98년생 관점을 달리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8, 93

卯 39년생 겁보다 내실을 기해야 한다. 51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63년생 기자회견하는 기쁨이 매우 클 것이다. 75년생 뜻밖에 지출해야 할 곳이 생긴다. 87년생 임시 봉합의 형태에서는 위험하므로 제대로 아니 된다. 99년생 바람이 몹시 세게 불어 연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태이다. 행운의 숫자 : 28, 57

辰 40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이다. 52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보게 된다. 64년생 간헐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76년생 뒷감 당할 일까지 염두에 두고 행하라. 88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헛수고다. 00년생 드디어 고강도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행운의 숫자 : 46, 96

巳 41년생 자기 껍데에 자신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 53년생 직접 표현하는 것보다 우회해서 비유함이 더 낫다. 65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겠다. 77년생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것이다. 89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01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83

午 42년생 종전등화의 위험에 놓여 있으니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정황이다. 54년생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66년생 지난간 일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78년생 약간의 활용해도 뛰어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90년생 이루는 것보다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니라. 02년생 애석하리라. 행운의 숫자 : 05, 73

未 43년생 구대의연함을 정리하여야 한다. 55년생 살펴보면 여실히 드러나리라. 67년생 가정이 살상이 된다. 79년생 주어진 여건에 불만을 갖지 말고 이리저리 궁리해 보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91년생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평상심을 유지하라. 03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버린다면 만사가 감해진다. 행운의 숫자 : 23, 90

申 44년생 잊고 있다면 놓칠 수도 있다. 56년생 여유를 갖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68년생 건실한 발상 속에서 북이 피어날 법이다. 80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92년생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고 있다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04년생 재수발원하면 효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48, 84

酉 45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이 놓여있다. 57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69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성숙함을 보일 때다. 81년생 바라던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판세이다. 93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이 틀림없다. 05년생 지리멸렬했던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22, 78

戌 34년생 기회만 제대로 포착한다면 아주 특별한 행운이 따르리라. 46년생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낫다. 58년생 유기적인 관계 설정이 시급하니 처세에 신경을 써라. 70년생 생각에만 머무르면 아무런 슬모가 없느니라. 82년생 상대의 뜻을 받아 줌이 결과적으로 나올 것이다. 94년생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3, 85

亥 35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 발생하여 시간을 빼앗긴다. 47년생 반드시 처음과 끝이 같아야만 한다. 59년생 절제하지 않으면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야 크게 후회하리라. 71년생 진중중 태도로써 조치일관한다면 성사되리라. 83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점에 놓여 있다. 95년생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행운의 숫자 : 14, 89